



[뉴스]
유니클로 빈 자리
지센 등 토종 패션
겨울히트템 '득템'
02



Economy

코스피 1939.90 (+12.73)	코스닥 594.65 (+3.08)
금리 (미국 3년) 1.09 (0.00)	환율 (원/달러) 1211.00 (+0.20) (19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2019.8.7 잔액기준)〉 (단위:억원, %, 명)

종류	판매 합계		개인 판매		법인 판매	
	금액	비중	금액	투자자수	금액	투자자수
우리은행	4,012	48.8	3,414	1,632	598	128
하나은행	3,876	47.1	3,603	1,829	273	56
국민은행	262	3.2	245	166	17	2
유안타증권	50	0.6	50	7	-	-
미래대우증권	13	0.2	8	14	5	1
NH증권	11	0.1	6	6	5	1
합계	8,224	100.0	7,326	3,654	898	188

/금융감독원

〈상품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현황(2019.8.7 잔액기준)〉 (단위:억원, %)

종류	판매잔액(A) (투자원금)	손실구간 진입금액(B)	예상손실액 (C)	예상손실률 (C/Bx100)
① 英/美 CMS 금리	6,958	5,973	△3,354	56.2%
② 獨 國채 10년물 금리	1,266*	1,266	△1,204	95.1%
합계	8,224	7,239	△4,558	

*판매회사별 판매 현황 : 우리은행 1,255억원 NH투자증권 11억원

DLS '깡통계좌' 속출 판매 전과정 집중검사

DLS·DLF 판매잔액 8224억
獨 國채 DLS, 95% 손실 예상
英美 CMS도 56% 손실 위기
당국, 검사국 연계 검사 추진

89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의 판매잔액은 1266억원이다. 현재 판매 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한 상태다. 현재 금리가 만기(올해 9~11월)까지 유지된다면 예상 평균 손실률은 95.1%에 달한다. 1억원을 투자한 고객이라면 다음달 만기에 49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단 얘기다.

영국과 미국 CMS 금리와 연계한 상품의 판매잔액은 6958억원 수준이다. 85.8%인 5973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만약 만기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된다면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다.

◆복잡한 파생상품 판매과정 합동검사
금감원은 해당 파생결합상품에서 깡통계좌가 속출하면서 이달 중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합동검사를 추진한다. 해당 상품의 판매사(은행 등), 발행사(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다"며 "해당 파생결합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은 물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관련 원활한 분쟁조정도 추진한다.

지난 16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총 29건이다. 검사와 병행해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법률 검토, 판례 및 분조례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금융 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홍콩시위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발행 및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i@metroseoul.co.kr

생보사, 운용수익 악화... 보험료 올린다

삼성·한화생명
"금리인하에 예정이율 인하 필요"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생명보험사가 저금리에 따른 수익 악화로 예정이율 인하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보험료 운용으로 얻는 예상수익률인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자산 기준 생보사 순위 1, 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최근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예정이율 인하를 공식화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지난달 기준 금리가 인하됐고 4분기에도 추가적인 인하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며 "예정이율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도 지난 8일 "최근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실제 예정이율 인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시기는 가능한

빨리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운용해 낼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보험사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수익자에게 주는 보험금으로 쓰고, 또 다른 일부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 보험사는 이 보험료를 활용해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가능해보고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기준이 예정이율이다.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정이율에 따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는 높아진다.

통상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을 인하해 왔다. 지난 2015~2016년 기준금리가 2.0%에서 1.75%, 1.25%로 떨어졌을 때 보험사들은 각각 25bp(1bp=0.01%)씩 예정이율을 내렸다. 예정이율이 25bp 내려가면 보험료는 평균 5~6%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들이 예정이율을 인하하려는 까닭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운용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수익률은 실적으로 직결된다. 지난달 18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대형 생보사를 시작으로 중소형사까지 예정이율 인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았다.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공시이율까지 낮아졌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보험금은 덜 받는 상황이 된 셈이다.

앞서 생보사들은 공시이율을 일제히 0.02~0.03%포인트 낮췄다. 공시이율은 보험사가 운용자산 이익률 등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금리다. 은행의 예금금리와 같은 개념이다. /김희주 기자 hj89@



‘독도방어훈련’ 이번 주 분수령

군 당국이 이번 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독도방어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6월에 실시할 계획했으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뤘다. 군 관계자들은 이달 20일 이후에는 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규모를 조금 줄여 예년 수준으로 시행하거나,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후 독도 모습. /연합뉴스

상장사 실적 '짙은 먹구름'... 영업이익 반토막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영향
매출액 36%, 순이익 40% ↓

올 상반기 코스피에 상장한 상장기업의 전체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582조원, 33조원, 30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6%, 44.32%, 39.53% 감소한 수치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679사다.

연결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은

98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3%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순이익은 55조, 37조원으로 각각 37.09%, 42.95% 줄었다.

2분기 매출액은 292조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0.85%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15조), 순이익(12조원)은 각각 19.27%, 34.51%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장비와 섬유 의복 등 8개 업종에서는 매출이 증가했고 의료정밀,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등의 9개 업종은 매출이 줄었다.

또 순이익의 경우 운수장비, 유통업 등 4개 업종의 흑자폭이 증가했고 의료정밀, 섬유 의복 등 11개 업종은 흑자폭

이 감소했다.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업은 적자를 이어나갔다.

금융업의 상반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5조7000억원, 12조원으로 각 9.08%, 7.18% 감소했다. 증권업, 은행, 금융지주 등의 이익이 증가한 가운데 보험업 이익이 떨어졌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 기업 실적 부진의 직접적인 배경은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이라며 "게다가 내수도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가 주춤하면서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4면에 계속〉

/김유진 기자 ujin6326@